



WORLD  
WARCRAFT  
MIDNIGHT

# 씹씹한 진실

단편 소설 (작가: ROBERT BROOKS)

스토리

ROBERT BROOKS

일러스트

SURFSIDE 3D

편집

CHLOE FRABONI, MEGAN WALKER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SOPHIE ERB

디자인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JT TORREA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성공의 그림

섭정 로르테마르 테론은 곧장 알아차렸다. 배신당했다. “아, 리아드린.” 로르테마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펍 즐거웠기를 바라오.”

하라시르의 산장에서 로르테마르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여군주 리아드린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자였다. 로르테마르는 조용히 웃었다. “술 한잔하자고 불러 놓고 아마니 장군을 대신 내보내다니. 외교 회담을 잡는 방식 한번 특이해.”

로르테마르 곁에 서 있던 하라시르 수호자가 짧은 콧소리를 냈다. 그뿐이었다. “음? 아, 그렇지. 수호자여, 그대는 훌륭히 책무를 다하시오.” 로르테마르가 비꼬듯 말했다. “쇼켈아란.”

아마니 장군이 고개를 들었다. 선술집의 따뜻한 불빛을 등진 엄니가 참여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로르테마르를 알아본 순간 트롤의 턱이 올라가고 눈썹이 내려앉았다. 로르테마르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정이었다. 수없이 많은 아마니에게서 본 표정이었다. 화살이 날아들고, 칼날이 맞부딪치고, 피가 흘러내리기 직전마다. “이런. 섭정께서 몸소 행차하셨구먼.”





트롤이 말했다. “우연일 리는 없겠지. 내가 또 자네 동족한테 속은 건가?”

“우리 둘 다 허를 찔리고 매복에 걸린 셈이오. 그것도 성기사에게 말이지.” 로르테마르가 부끄러운 시늬를 했다. 당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마니와 말을 섞는들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물며 오늘 같은 날에. 그렇지만 물러나는 순간 적 앞에서 달아난 꼴이 된다. ‘그럴 수는 없지!’ 리아드린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우리 둘 다 체면이 말이 아니군. 여군주 리아드린이 그랬소? 회담 끝나고 한잔하자고?”

트롤이 한숨을 쉬었다. “리아드린이 외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네. 실제로 가져온 건 이 호리병이었지.” 토론도가 손짓으로 호리병을 가리켰다. 탁자에 놓인 호리병이 흔들리자 안쪽의 액체가 출렁였다. “그런데 잔이 없었네.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하더군.” 토론도의 시선이 로르테마르의 손으로 내려갔다. 이어 날카로운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자네가 나타났지. 잔은 두 개. 세 개는 아니고. 리아드린은 오지 않는 건가?”

“왜 오겠소? 임무는 이미 완수했는데. 하라니르의 땅에서는 싸움이 금지되어 있소. 즉 아마니와 신도레이가 폭력 없이 대화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지.” 로르테마르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호리병 쪽으로 턱짓했다. “한데 대체 뭘 마시라는 거요? 그 호리병은 그리..... 음..... 깨끗해 보이지 않소만.”

“모르겠네. 내가 열어 보지.” 토론도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뽑았다. 그리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마개를 찔러 빼냈다. 마개 냄새를 맡자 트롤이 기묘한 표정을 지었다. “뭔지는 몰라도..... 산 사람 마시라고 만든 물건은 아닌 듯하군. 마셔 보세.”

도전이 걸렸다. 싸움의 조건도 분명했다. “물론이오.” 로르테마르가 탁자에 앉아 잔 하나를 건넸다. 토론도는 호리병을 기울여 잔 끝까지 술을 채웠다. 그리고 잔을 돌려준 뒤 남은 잔도 달라는 듯 손짓했다.

두 잔이 모두 차자 토론도가 제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하세. 속아 넘어간 자들을 위하여.” 로르테마르도 잔을 살짝 들었다. “그리고 그 대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둘은 잠시 망설였다. 서로의 망설임을 확인한 뒤, 거의 동시에 잔을 크게 들이켰다. 표정을 수습하는 데 몇 초가 걸렸다. 둘 다 기침을 참아내려 했다. 거의 성공할 뻔했다. 거의 말이다. 로르테마르가 작게 헛기침했

다. “이건..... 익숙해져야 맛을 알 수 있는 술이군. 상당히 쓰구려.”

“씩여가는 술방울을 핥는 것 같군.” 토론도가 동의했다. “내 이름은 토론도. 줄자라 족장의 전쟁 조인가일세. 자네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 로르테마르 테론. 섭정. 보석으로 치장한 무리의 번쩍이는 수장.” 토론도는 자기 농담에 웃는 척하며 또 한 차례 기침을 숨겼다.

“감격스럽군.” 로르테마르는 최대한 외교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실버문 연회와 호드 의회 회의에서 쓰는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런데 오늘이 처음 만남은 아닌 듯하오. 썩 유쾌하지 않았던 자리였겠지.” 토론도는 미소 지은 뒤 또 한 모금 마셨다.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다. “자네의 성기사 친구 말이네.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이 구정물을 얼마나 마셔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쿠엘탈라스와 줄자만의 우정이라.” 로르테마르는 웃음을 흘렸다. “참으로 낙관적이군. 그대의 동족이 여군주 리아드린의 부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잔혹한 날이었지.” 토론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런 일을 겪고도 용서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네.” 그러다 어조가 가벼워졌다. “나는 리아드린을 존경하네. 줄자라도 그렇고. 자네 종족 중에 숨을 들이쉬고 내 쉴 때마다 거짓을 뱉지 않는 이는 참 드물거든. 오늘 일만 예외로 치면 말일세.”

“리아드린은 분명 나보다 나은 사람ियो.” 로르테마르는 토론도의 모욕을 똑똑히 들었다. 토론도가 다시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자네보다 나은 사람들을 위하여 건배하세. 그리고 그런 이들의 존경스러운 점을 위해서도.”

“시누 아마노래.” 로르테마르는 술을 다 비웠다. 실버문 궁정에서 연쟁은 예열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도 꽤 유쾌했다. “어쩌면 리아드린은 자정까지 빈 호리병 하나, 새벽쯤에는 상호 원조 협정 하나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토론도도 제 잔을 비웠다. “아, 그래. 하라니르가 알려 준 대단한 비밀 말이군. 우리는 한 종족이고 한 조상에서 나왔다. 엘프도 트롤도 형제자매다. 그러니 우리의 사소한 다툼은 얼마나 우스운가. 뭐 그런 이야기들.” 토론도는 잔을 다시 채웠다. “내가 무례한 소리를 했구먼. 하가르의





연설은 아주 훌륭했네.”

“훌륭했지.” 로르테마르가 동의했다. “즐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지만. 성질을 좀 가라앉히고 돌아올 것 같소? 아니면 그 유치함 때문에 더 많은 아마니가 목숨을 대가로 치를 것 같소?”

“두고 봐야지.” 토론도가 가볍게 말했다. “즐잔은 비겁자처럼 분노를 묻어 두고는 아니라고 우기지 않네.”

로르테마르가 마침내 반격했다. “글쎄. 품위 있는 처신도 품위가 없는 자들에게는 비겁해 보이는 모양이오.”

“동의하네.” 토론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토론도는 로르테마르와 눈을 맞쳤다. “자, 다시 잔을 채워주지.” 호리병 주둥이에서 액체가 꾸르륵 흘러나왔다. “나는 자네들 종족을 보고 한 가지는 늘 대단하다고 생각해 왔네.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손에 묻은 피는 죄다 씻어냈고, 손톱 밑의 흙은 깨끗이 긁어냈고, 연회와 행사장으로 가기 전에 거리를 깔끔하게 쓸어 놓지.” 토론도는 그 말들이 저주라도 되는 듯 웃었다. “말끔한 사람들이 모여서는 한 번도 더러웠던 적이 없었다는 듯 굴어. 그리고 그걸 품위라 부르지. 알팍한 가면일세. 쓰고 있기도 몹시 어렵고.”

“오. 부러워하는 눈치인데.” 로르테마르는 한 음절씩 또렷하게 말했다. “말해 보시오. 즐자라가 그대에게 또다시 만행을 저지르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겠소? 족장도 조부한테서 잘 배웠을 텐데. 아마니 약탈 부대가 무고한 이들의 시신을 기괴한 모양으로 전시하는 꼴을 본 지도 오래되었군. 어쩌면 옛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지. 케케묵은 재앙을 불러내서 또다시 우리 동족이 나서서 잠재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로르테마르는 목소리에 연민을 실었다. “아니면 품위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가르치려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오.” 로르테마르는 잔을 길게 들이켰다. “음. 이 술의 맛을 조금 알 것 같군.”

아마니 장군은 잠시 섭정을 바라보기만 했다. “기억나는 만행이 하나 있네.” 토론도가 담담히 말했다. “마법학자 한 무리와 고위 순찰대원 몇 명이 붙잡힌 적 있었지.”

토론도가 말을 이었다. “그 시절 족장은 지위 있는 쿠엘도레이가 붙잡히면 꼭 직접 손봐 주고 싶어 했네. 자신이 받은 환대를 갚아 주기 위

해서 말이야. 원한이 꽤 깊었거든. 팔 한 짝. 눈 한 짝. 어떤 이들은 그런 대우를 두고..... 품위가 없다고 하겠지.”

“그대가 거기 있었군.” 로르테마르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 전우들이 도륙당하고, 줄진이 내 피로 제 몸을 물들었을 때.”

토룬도는 그저 미소 지었다. “정답일세, 섭정. 우리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네.”





## 제2부 - 건배

이것은 전쟁이었다. 같은 적의, 같은 살의. 다만 이번 싸움은 말로 치를 뿐이었다. 둘 다 그것을 알았다.

“그렇네, 섭정. 자네가 붙잡힌 그날 나도 거기 있었네.” 차분한 대답은 어떤 비웃음보다 깊게 로르테마르를 베었다. “줄진이 즐거움에 너무 취했었지. 자네가 달아나도록 놔뒀네. 그날 나는 형제들을 잃었네. 그래도 줄진을 미워하지는 않았어. 자네가 줄진과 마주치기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쟁이 영혼을 잿더미로 태워 버렸으니까.” 토론도는 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로르테마르는 그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단숨에 잔을 비우고 직접 다시 채웠다. 하라니르 술의 열기가 오래된 기억의 얼음장 같은 냉기와 맞붙게 내버려두었다. “그렇군. 이제 그대를 만난 일이 떠올라.”

“언젠가는 떠올릴 줄 알았네.” 토론도가 말했다.

“다른 날의 일ियो.” 로르테마르는 이성을 되찾았다. 자제심도 되찾았다. 판단력도 되찾았다. “수십 년 전.”









“엘프는 나보다 오래 살지.” 토론도가 말했다. “너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아이였을 걸세.”

“그렇소.” 로르테마르는 토론도가 다시 잔을 채우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아마니 소년 하나가..... 젠타마니 마을에서 자랐을지도 모르겠군?”

하라니르 술이 잔 밖으로 넘쳤다. 이번에는 토론도가 놀랄 차례였다. “그러니 말해 보시오.” 로르테마르가 말했다. “장군이라는 직위를 얻기 전, 반백의 토론도라 불리기 전의 그대는 어느 마을에서 컸소, 토론도?”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은 토론도였다. 이제 로르테마르는 되받아치고 싶었다.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반격의 효시는 제대로 통한 듯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소?” 로르테마르가 물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군. 어느 마을에서 살았소?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르겠구려. 어릴 적 살던 마을이 파괴됐다면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몸을 의탁해야 했을 테니.”

“참으로 영리한 엘프로군.” 토론도가 말했다. 경의처럼,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모욕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맞네. 나는 젠타마니에서 자랐네. 수많은 아마니 아이들이 그랬듯이. 젠타마니의 아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하이 엘프의 품위 있는 방식을 몸소 겪었지. 그렇다고 자네가 날 거기서 보았다는 뜻은 아니네.”

“그대라는 개인을? 아니. 기억나지 않소. 육십 년 전 일이니.” 로르테마르가 받아쳤다. “내 기억에 가장 선명한 건 우리가 왜 그 마을로 향했는가 하는 점시오. 수레를 장식하던 시신들. 민간인. 아이들. 아무리 아마니라고 해도 심히 모독적인 짓이었소. 병사들에게 그랬다면 분노만 했겠지. 근데 양민을 모독해? 그대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었소. 순찰대 사령관 리리사 윈드러너의 주의도 함께.”

토론도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로르테마르를 지켜보며 또 한 모금 마셨다.

로르테마르는 계속했다. “실버문의 어떤 이들은 리리사가 아마니한테 너무 무르다고 여겼소. 받은 만큼만 되갚으려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뒤 며칠 동안 우리가 벌인 일이 퍼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소?” 로르테마

르는 나지막이 웃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한참 잠재웠지. 다행히 약탈 부대를 추적하는 건 쉬웠소. 솜씨가 어설프거든. 하긴 유능한 자가 잔혹함에 기대는 일은 드물지.”

로르테마르는 잔을 들어 하라니르 술을 더 삼켰다. 아마니와의 전쟁은 떠올리기 괴로운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기억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약탈 부대를 쫓아 그대가 살던 마을까지 갔소. 다들 거창한 승리를 거뒀다며 축하하고 있었지. 포도주를 실은 수레가 한 대는 통째로 있었을 거요. 우리는 밤새 지켜봤소. 알아서 곤드레만드레 취하도록 내버려두었지. 해가 뜨자 우리는 그냥 걸어 들어갔소.” 로르테마르는 호리병을 집어 들어 토론도의 잔을 채웠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토론도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마을이 아니었소?”

“맞네.” 토론도가 딱 잘라 말했다.

“말했듯, 그대를 기억하지는 못하오. 하지만 얼굴 생김새는 알아보겠군. 아이의 얼굴은 아니니.” 로르테마르는 토론도의 얼굴을 살피는 척했다. “약탈 부대에 그대 가족 중 누가 있었소? 아버지? 사촌?”

“삼촌이었네.” 토론도가 말했다.

“흠..... 이마와 체격이 닮았군.” 로르테마르가 정겹다는 듯 말했다.

“다만 전략적 감각은 그대가 낫군. 안타까운 일ियो. 생채기 하나 없이 전부 사로잡아서 실망스러울 지경이었거든. 놈들은 우리의 무기도 잔뜩 쌓아 놓고 있었소. 너무 취해서 쓰지 못했을 뿐. 그러니 우리도 어딘가에서 만족을 찾아야 했소. 그대라면 이해할 테고.”

“물론 이해하지.” 토론도가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처형했는지도 기억하오?” 로르테마르는 술을 깊이 마셨다. 혀끝에서 피 맛이 났다. 쓰고 비릿한 쇠맛이었다. “수레에 매달린 사람들이 느꼈을 고통을 놈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줬지.”

“잊기 어렵지.” 토론도가 말했다. “지저분한 광경이었네. 근데 자네 말대로 잔혹함은 유능한 자들이 잘 쓰지 않는 법이니까.”

“그대의 마을은 도살자들을 숨겨 주었소.” 로르테마르가 말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지.”

“우리 대장장이는 누구도 숨겨 주지 않았네.” 토론도가 말했다. “그









저 제 반려가 죽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을 뿐일세. 그리고 자네 중 하나가 그 비명을 다시는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지. 자네들 손으로 불을 붙인 초가 건물들은 기억하나? 비어 있지 않았네.”

“흠. 전쟁이란 참으로 끔찍한 것이오.” 로르테마르는 마음에도 없는 유감을 담아 말했다.

“나도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네. 그때 나는 세 살, 많아야 네 살이었을 테니까.” 토론도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기억만 있었다. “약력을 보는 것 같았어. 번쩍이는 칼날을 들고, 무장도 하지 않은 아마니 하나하나에게 다가갔지. 자네들은 완전히 무적이었고, 우리는 완전히 무력했네.”

“그럼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한 셈이군.”

“아주 제대로 했지.” 토론도가 동의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쳤네. 아마니자르로 달아났지. 그리고 커서 전쟁군주의 깃발 아래 모였네. 자네들 모두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한 자의 깃발 아래에 말일세. 실제로 자네들도 대가를 치렀고.” 토론도는 또 한 모금을 음미했다. “자네 말대로..... 전쟁이란 참으로 끔찍한 것이지.”

“그 전쟁도 드디어 끝이 가까워진 것 같지만.” 로르테마르가 딱딱하게 말했다. “요즘 그대들의 지도자가 특히 절박해 보이더군. 그대의 동족이 내 동족에게 도움을 구걸하게 될 줄은 몰랐소.”

“구걸?” 토론도가 재미있다는 듯 되물었다. “줄자라 족장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네. 리아드린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했지. 다른 이들도 그랬고.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말이야.” 토론도의 어깨가 낮은 웃음으로 흔들렸다.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군. 황혼의 칼날단은 자네가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성공할 뻔했네. 자네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지. 우리도 그랬거든. 스컬지가 자네 왕국을 둘로 갈라놓고 자네들의.....”

로르테마르의 주먹이 토론도의 광대뼈에 날아들었다. 엄니 바로 위쪽이었다.









## 제3부 - 잔 밑바닥

결정이라 할 것도 없었다. 행동만 있었다.

곧 발소리와 외침이 따라왔다. 하라니르 수호자들이었다. 토룬도가 한숨을 쉬었다. 기쁘고도 만족스러운 소리였다. “수호자들이여, 손을 거두게. 난 괜찮네.”

로르테마르는 그 말이 모욕처럼 와닿았다. 말 몇 마디에 명예가 금이 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내..... 휴전 합의를 깨뜨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잠시 뒤 수호자들은 로르테마르를 붙잡았던 손을 느슨하게 풀었다. 다만 가까이 머무르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두 번째 기회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토룬도는 뺨을 가볍게 문질렀다. 벌써 거뭇거뭇한 멍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이 전쟁을 끝내는 편이 낫겠군. 우리 둘 중 누구도 이길 자격이 없으니.”

로르테마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이 남았소. 이번엔 내가 따르겠

소.” 호리병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래도 둘이 한 잔씩 가득 마시기에는 충분했고, 조금 더 남았다.

“사과하지 말게.” 토론도가 말했다. “후회하지도 않는 일을 두고 사과할 필요는 없지.”

“그래도 나는 예의를 귀하게 여기오. 적을 대할 때도.” 로르테마르가 말했다.

“또 나왔군. 스스로를 속이는 그 무궁무진한 재주.” 토론도가 대꾸했다. “자네는 심지어 그 말을 믿는 것 같고 말이야.”

로르테마르가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을 믿는단 말ियो?”

“내 마을이 도살자들을 숨겨 주었다는 것. 자네들이 처형한 취한 아머니들이 야만인이었다는 것.” 토론도가 말했다. “자네들은 정말 결백했다고 생각하는군. 그렇지 않은가?”

로르테마르 테론은 이제 지쳐 있었다. 싸움의 흥은 이미 사라졌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자리를 뒀을 것이다. 하지만 로르테마르는 불명예스럽게 토론도를 쳤다. 대결의 규칙을 어겼다. 그러니 이 정도는 작은 속죄였다.

“그러니까. 그대의 마을은 무고했다는 건가.” 로르테마르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평화로운 장인과 농부와 대장장이들만 가득했고,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보다는 그럴듯한 말을 꺼낼 수 있기를 바라오.”

토론도는 섭정을 향해 활짝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오, 전사들도 있었네. 내 삼촌도 그중 하나였지. 그 전사들이 실제로 수레를 불태우긴 했네. 근데 자네 수뇌부가 들려준 그 알팍한 이야기를 믿었나? 자네는 순찰대 출신 아닌가. 거짓과 진실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 수레에 실려 있던 시신이 없었다고 설득하려면 좀 더 애써야 할 거요.” 로르테마르가 말했다. “유혈극이 없었다고도 말ियो.”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그 수레에 실려 있던 엘프의 마법 무기도 진짜였고.” 토론도가 말했다. “어떤 민간 상단이 그런 무기를 신고 다니나? 자네는 들은 이야기에 정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나?”

“죽은 아이들이 있었소.” 로르테마르가 말했다. 목소리는 생각만큼 흔들림이 없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엘프의 무기도 있었다. 나는 왜.....?









“원정순찰대가 동행하고 있었네.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지. 싸우는 방식이 워낙 독특해서 알아보기 못할 수가 없었어. 왜 약탈 부대가 그날 밤 그렇게 취할 때까지 마셨다고 생각하나? 내 삼촌은 명예로운 전사였네. 그 광경을 머릿속에서 씻어 내야 했던 걸세. 약탈 부대는 자네들이 대체 무슨 미친 생각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두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네.” 토론도는 멍든 뺨을 문지르고 또 한 모금 마셨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아이들을 방패로 쓸 생각을 하나?”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전쟁군주였소.” 로르테마르의 목소리는 텅 빈 듯했다.

“그래. 줄진은 수위가 올라가면 그보다 더한 수위로 되잖았지.”

“그런데도 그대는 줄진을 따랐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군.”

토론도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로르테마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나? 자네는 내 삶을 넘는 수백 년을 살았고, 앞으로 수백 년을 더 살 텐데. 그런데도 *우리* 중 누구 *하나*는 이 전쟁을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나?”

로르테마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또 술을 마셨다.

“어쩌면 자네의 순찰대 사령관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원정순찰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어느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날 그 지휘관을 죽였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아이들이 죽었으니 자네들은 *우리가* 야만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지. 그날의 비극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악취가 자네들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품고 싸우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줄진은 그런 편리한 명분을 좋아했네. 무고한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 나와 다른 이들이 윈드러너 마을로 향한 것도 그 불 때문이었네. 또 다른 학살. 내가 거기서 무슨 자부심을 느껴야 하지?”

토론도는 눈을 감고 슬프게 웃었다. “부끄러워해야 하나? 나는 내 의무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네. 자네처럼..... 나 역시 줄진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젠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장군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건가.” 로르테마르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흥미롭군. 조금 전 스스로를 속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소?”

“참 쉬운 일이지, 안 그런가?” 토론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스며 있었다.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이 전쟁은 우리 둘보다 오래되었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증오 속에서 살아왔지. 친구들이 쏠려 나가면 우리도 적을 보이는 대로 쏠어 버렸네. 끔찍하다 여기면서도 때로는 그 피비린내를 즐겼지. 증오 때문에 죽거나, 증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네. 우리 중 누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

토론도는 제 잔을 내려다보았다. “오늘의 전쟁이 무엇을 두고 벌여 지는지가 중요하거나 한가? 영토? 수십 년 묵은 학살? 아니면 그저 습관? 우리는 둘 다 이 전쟁에 묶여 있네.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지. 사실 찾고 싶어 하지도 않아.” 아마니 장군은 지친 웃음을 흘렸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해 살았네.” 토론도가 말을 이었다. “평화 협정을 맺어서 끝내든, 일부러 그러지 않든 전사로서의 내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걸세.” 토론도는 승리한 듯 로르테마르에게 웃어 보였다. “그런 면에서 시간은 자네들에게 잔혹하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해도 내 전쟁은 자네의 전쟁에 비하면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 영원처럼 느껴졌나? 그 품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나?”

로르테마르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대가 살던 옛 마을. 괴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약탈 부대였소?”

“아이의 기억이 어떻게 진실을 알겠나?” 토론도가 거의 흥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쪽에 떠도는 전사들이 있었네. 그 전사들이 알고도 무고한 이들을 학살했다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걸세.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네.”

토론도의 시선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여군주 리아드린에게 전해 주게. 나를 속여 줘서 고맙다고. 이 대화는 참으로 값진 선물이었네. 그래도 이젠 가봐야겠어.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자네들 손에서 오든, 다른 이들 손에서 오든.”

“그럴 수도.” 로르테마르가 말했다. “그대에게 마땅한 결말이 찾아 오길 바라오.”

이미 걸음을 옮기던 토론도가 호탕하게 웃었다. “끔찍한 저주로군. 나도 하나 돌려주지. 자네가 원한다고 믿는 그 영원이 찾아오길 바라네.”

그리고 토론도는 떠났다.

로르테마르는 홀로 앉아 산장의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원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불쾌하게 걸렸다. 마지막 한 모금은 허끝에 쓰게 남아 있었다.

“끔찍한 저주로군.” 로르테마르가 조용히 인정했다.





